

TV 20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C / SBS
40 키토닝 A	00 KBS 뉴스광장	00 2TV 아침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경북70주년 인건극장		1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이브의 사랑)	30 KBC 모닝와이드
8	00 아침경계 골든타임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9	00 신문이야기 돌직구 쇼+	30 KBS 뉴스	00 TV소셜 40 여유만만	25 닥터365 30 아침연속극 (어머님은 내 며느리)
10	20 시사 인사이트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5 별별가족	40 지구촌 뉴스	10 좋은 아침
11	30 나는 몸신이다	00 KBS 네트워크 특선 필통 55 바른말 고운말	00 인건극장 스페셜 1~3부	00 SBS 뉴스 30 SBS 생활경제
12	40 채널A 뉴스특보	00 KBS 뉴스12	45 우리동네 예체능(재)	00 KBC 생활뉴스 30 닥터365 35 인생횡단 올드보이가 간다
1	50 뉴스특급	00 KBS 명품역사관 역사저널 그날(재) 50 별별가족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특별기획 (여왕의 꽃)(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00 남도의 보물 100선 20 세상발견 유레카
2		00 2015 평화 스페셜 아트뮤직 페스티벌 패밀리공연	00 KBS 뉴스타임 10 생활의 발견(재)	00 SBS 12 뉴스 50 닥터365 00 남도의 보물 100선 20 세상발견 유레카
3	00 직언직설	25 행복한 지도(재) 55 오늘의 경제	05 후토스 잃어버린 숲(재) 30 자동공부책상 위키	00 건강 클리닉(재)
4	20 쾌도난마	05 다문화 청춘의 힐링캠프 (꿈을 쏘다 재1편)	00 TV 우치원 콩다공 30 별별가족 35 동물의 세계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30 구르기 탐구 생활
5	50 박정훈의 뉴스 TOP10	00 KBS 뉴스 5 2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지오그래피	00 KBS 뉴스타임 30 TV 저녁	00 SBS 뉴스퍼레이드 15 KBC 저녁뉴스 30 바이클론즈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사는 세상	00 KBS 글로벌24 30 2TV 저녁	10 생방송 빛날	00 밤피와 생활 05 닥터 365 10 KBC 생방송 투데이
7	10 갈데까지 가보자(재)	00 KBS 뉴스7 30 한국인의 밤상	50 일일 드라마 (오늘부터 사랑해)	10 시사타치 때때부파 20 일일드라마 (돌아온 황금복)
8	20 이제 만나러 갑니다(재)	25 일일연속극 (가죽을 지켜라)	30 생생정보 55 시간을 달리는 TV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9	3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9		
10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세계적악기 본 대항민국 경제 100년 55 송터	00 수목 드라마 (어셈블리)	00 드라마 스페셜 (용팔이)
11	00 잘 살아보세 스페셜	00 KBS 뉴스라인 40 발굴추적 형질무장 투쟁의 선구자, 김규홍	10 해피 투게더	15 자기야
12	40 카톡쇼 X	30 네트워크 문화특선 올댓 뮤직	4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MBC 뉴스 24 5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EBS1

05:00 EBSe 생활 영어	09:35 이말! 스페이스 정글	14:15 정글북 2	18:00 생방송 토크! 보니하니
05:30 건강한 아침	09:40 달라졌어요	14:30 매일드사	19:0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05:40 만나고 싶습니다(재)	10:30 최고의 요리비결	15:00 초능력 특공대	19:30 EBS 뉴스
06:10 세계의 눈(재)	11:00 최고의 요리비결 플러스	15:15 두기 탐험대	19:50 청춘! 세계대전기
07:00 뽀빠에 친구(재)	11:10 다큐 오늘	15:30 뽀빠에 친구	20:40 다큐오늘
07:15 책과 평화	11:20 세계테마기행	15:45 부흥! 부흥! 브루미즈	20:50 세계테마기행
07: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재)	12:00 EBS 정오 뉴스	16:00 당동당 유치원(재)	(인도네시아 화산섬 자버를 가다)
07:45 꼬마버스 타요(재)	12:10 연중기획 (행복한 교우세상)	16:20 원더볼즈	21:30 한국기행 (태백 삼척)
08:00 당동당 유치원	13:05 역사채널	16:30 우당탕탕 아이쿠	21:50 EBS 스포츠 프로젝트
08:20 로보가 폴리(재)	13:10 돌진! 슈퍼가정부와 위험한 동네	16:45 책과 땅	22:45 다문화 고부형(재)
08:35 방귀대장 뽀빠이	13:40 사이먼 지우인 자격평가	17:00 방귀대장 뽀빠이(재)	23:35 글로벌 가족정하기
08:50 코코몽 3	13:50 초등 4학년 여름방학생활	17:30 두다다	24:05 역사채널
09:05 원더볼즈(재)	14:10 배울 너머	17:45 로보가 폴리	24:10 EBS 스페이스 공감 1.2

EBS플러스1

00:00 올림픽스 <국어II-읽어듣기>	12:15 올림픽스 <국어II-읽어듣기>
00:50 " <고교 영어독해-junior>	13:05 수능특강 light <영어-듣기>
01:40 " <화술과 통계>	14:00 2016 수능완성 <국어a>
02:30 " <기하와 벡터>	14:50 올림픽스 <화술과 통계>
03:20 " <수학II>	15:40 " <기하와 벡터>
04:1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16:30 " <수학II>
	17:20 올림픽스 평가문제집
05:00 뉴탐스런 <화학I>	18:10 2016 N제 <기하와 벡터>
06:00 " <지구과학I>	19:20 " <수학B>
06:40 " <세계지리>	19:20 " <세계사>
07:30 " <법과 정치>	20:00 EBS 스타강사 특강
08:20 2016 수능개념 <윤리주의 영역>	20:50 2016 인터넷 수능
09:10 " <이온주의 수학II>	21:50 " <문법 B형>
10:10 2016 수능완성 <영어듣기>	21:50 " <수학 B형>
11:00 " <수학I B>	22:30 박범의 이슈로 만나는 경제

EBS플러스2

07:00 2015 공인중개사 시험대비강좌	15:20 초등 1년 EBS 여름방학생활
07:30 경찰직 공무원 시험대비강좌	15:40 초등 2년 EBS 여름방학생활
08:00 9급 수방안전직 시험대비 강좌	16:00 초등 3년 EBS 여름방학생활
08:30 원산지관리사 시험대비 강좌	16:20 초등 4년 EBS 여름방학생활
09:00 출거순 수학 EBS MATH	16:40 초등 5년 EBS 여름방학생활
09:10 15일의 기적 <국어(3)(4)>	17:00 초등 6년 EBS 여름방학생활
09:50 " <수학2>	17:20 만점왕 문제풀이 <진과목 6-1>
10:30 " <영어2>	18:00 TV 중학 <수학3(하)>
11:10 " <사회2>	18:40 " <영어3>
11:50 " <과학2>	19:20 필독 중학 국어 <소설>
12:30 EBS 특강	20:00 EBS 인문학 특강
13:00 대일리 사술형 수학	20:50 EBS 기획시리즈
13:10 15일의 기적 <국어(5)(6)>	21:40 EBS UCC 공모 나피디
13:50 " <수학3>	22:00 15일의 기적 <과학(3)>
14:30 " <영어3>	22:40 등업시공 <과학(3)(하)>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0일(음 7월 7일 戊辰)

子	48년생 의문이 생긴다면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만 한다. 60년생 밤심한다면 목표에 거의 다 이르러서 놓칠 수 있다. 72년생 거주 장소라면 버려도 된다. 84년생 흐름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속고해 볼 일이다. 행운의 숫자 : 02, 50
丑	49년생 복잡다단한 국량이나 부지런히 정거야 제대로 돌아갈 것 이니라. 61년생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순조로우리라. 73년생 판공은 절대로 버리지 않느니라. 85년생 자신을 기쁘게 해주 는 이가 보인다. 행운의 숫자 : 21, 56
寅	38년생 노출되지 않은 부분에 행운이 있다. 50년생 상대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을 수도 있느니라. 62년생 무리가 따르지 않게 하자. 74년생 소를 버렸을 때 대를 취한다. 86년생 편하게 생각 해도 괜찮다. 행운의 숫자 : 29, 06
卯	39년생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분명해 있느니라. 51년생 마주 대하 고 보면 자신도 모르게 마음이 달라질 수 있다. 63년생 조화에 초 점을 맞추자. 75년생 부족하다면 좀 보태면 되는 것이다. 87년생 가치 납득이 갈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2, 82
辰	40년생 가깝지 않아야 면역하리라. 52년생 대상의 선별에 신경 쓰지 않으면 상당한 손실을 야기할 수도 있다. 64년생 체계에 따 르는 것이야말로 성부의 관건임을 알라. 76년생 여러 가지 근거 들을 확보해 뒤라. 행운의 숫자 : 77, 13
巳	41년생 여태까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국면으로 전환 될 가능성 이 있다. 53년생 집착을 떨쳐버려야 객관적 판단이 가능해진다. 65년생 생색만을 내리는 이가 있다. 77년생 기조가 되는 저변을 꼭 확인하라. 행운의 숫자 : 14, 62

午	42년생 계속되는 형세 하에서 진전을 보일 것이다. 54년생 기회를 만나면 즉시 잡아야만 취할 수 있는 법이다. 66년생 변화없이 한결 같이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전혀 딴 판으로 흘러 가고 있는 형국이다. 행운의 숫자 : 63, 78
未	43년생 이해득실에 얽매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다. 55년생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날 것이니 정신 바짝 차리라. 67년생 두각을 나타내면서 상당한 진전을 보일 것이다. 79년생 취약한 곳은 철저히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1, 64
申	44년생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 천양지차 가 날 것이다. 56년생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용시켜 보라. 68년생 전반 적인 물결기가 예상된다. 80년생 직접 보고 듣고 느낀 대로만 전 해야 하느니라. 행운의 숫자 : 28, 83
酉	45년생 투명하고 정확해야 뒤따라 없을 것이다. 57년생 가장 기 본적인 것을 제일 중용해야 하는 단계이다. 69년생 당황하거나 머뭇거리면 아니 된다. 81년생 구도를 좌우할 만한 변수가 작용 하는 계제이니라. 행운의 숫자 : 84, 40
戌	46년생 전혀 다른 의미가 이중적으로 있음을 알라. 58년생 진행 되는 과정에서 사실상의 가락이 잡힐 것이다. 70년생 위험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형상이다. 82년생 정성을 들이면 얻는 바가 많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41, 48
亥	47년생 밤심한다면 빈틈을 해집고 들어오는 원인이 생길 수다. 59년생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하다. 71년생 단순하 게 판단하면 오류를 부를 뿐이다. 83년생 공중으로 행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행운의 숫자 : 49, 93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악역 전문 이미지 벗고 양면성 갖춘 배우 될래요”



영화 '오피스'서 '선한' 형사역에 도전한 박성웅

내달 3일 개봉하는 영화 '오피스'에서 배우 박성웅(42·사진)은 형사를 연기했다. 경찰 조직의 일원으로서 판정각하는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형사는 아니다. 오히려 '선한' 형사에 가깝다.

최종훈 형사는 김병국 과장의 일가족 살해 사건을 담당하기는 했지만, 사건을 해결하는 쪽이라기보다는 사건에 끌려 다니는 쪽이다.

자연스럽게 "왜 박성웅이?"라는 의문이 생긴다. 아직 많은 관객에게 박성웅은 누아르 영화 '신세계'(2013년)에서 "딱 죽기 좋은 남씨네"라고 율조리는 위압적인 '형님' 이종구이기 때문이다.

박성웅은 "왜 나를 악역 전문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런 수식어가 마뜩찮은지 묻자 "그 얘기가 3년째 듣다 보니"라고 했다.

"시사회장 가서 사진 한 번 찍어도 사람들이 '신세계'를 패러디해요. '시사회 보기 딱 좋은 남씨네' 하고 나한테도 이종구는 하나의 숙제예요. 뛰어넘어야 하는. 역할이 너무 비슷하면 할 수 있는 연기가 없어요."

실제로 '신세계' 이후 그가 시도한 역할은 이종구와 일관성 쌍둥이는 아니었다. '역린'에서는 정조의 금위대장 흥국영이었고 '무뢰한'에서는 여자를 위해 살인하고 여자를 위해 도망 다니는 남자였다. '황제를 위하여'의 사제업자도 역시 건달이었지만, 사투리 연기에 도전했다는 점에 그는 의의를 둔다.

"촬영에 들어가 '검사의전'에서의 역할도 선과 악이 모호한 캐릭터예요. 그동안 '일방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 양면적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시대극 '해어화'도 촬영 들어가고요."

새로운 도전을 강조하는 그에게 남성이 넘치는 외모와 분위기 때문에 관객도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그는 "연극할 때는 남장 역할까지 해왔다"고 강조했다.

"검 씬으면서 '오빠~' 하는 연기도 해봤니까요. 다양한 역할을 갈망한다고 써주세요.(웃음) 뭐든 내놓고 하는 것 말고 평소 모습에서 딱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역할이요."

정글보다 살벌한 회사에서 벌어지는 공포스러운 심리전을 그린 스릴러 '오피스'에서 외부인인 최 형사는 일종의 관찰자로서 기능을 한다. 터뜨리는 연기보다 어려운 게 절제하는 연기라지만 일견 답답할 수도 있는 역할이다.

박성웅은 "그동안 보여주지 않은 모습이라 도전할 만하다고 생각했다"고 작품 선택 이유를 밝혔다.

"잘하고 싶었어요. 의성이 형(부장 역을 맡은 배우 김의성)이 '내가 무표정으로 이걸 하면 형사로서 무게중심도 잡을 수

있을 거 같고 좋겠다'고 권해서 더 긍정적으로 보게 됐고요. 배우들이 다 좋았어요. 고아성(인턴 미례 역) 씨와도 호흡 맞춰보고 싶었고..."

촬영 중에는 연기에 새로운 뒷일을 하기보다 시나리오 그대로 해석하고 했다고 한다.

"뭘 더 하려고 하지 않고, 뭘 더 하지 말아야겠다" 생각했죠. 다른 배우들이 판에서 놓고 있을 때 저는 관망하지만, 관객은 나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충북 충주 출신인 그는 식구도 많고 그중에서도 남자들이 유독 북적거리는, 남자와 여자가 겸사하지 않는 엄격한 집안에서 자랐다고 한다.

그러나 아이들 배우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 부모님 반대가 심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그는 연기를 시작하고 나서 첫 3년 동안은 말도 꺼내지 못했다고 한다.

"영화 단역 말고 처음 제대로 된 역할로 무대에 오르게 됐을 때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를 모시고 오셨죠. 그랬던 아버지가 나중에 '태왕사신기' 할 때 지인들한테 전화해 '우리 아들이 거기 나온다고' 아니, 첫째 말고 둘째!' 하시더라고요.(웃음)

'태왕사신기'에서 박성웅은 동료 배우 신은정(41)을 아내로 얻었다. 집에서 서로 작품을 고를 때 도움을 주거나 연기 관련 조언을 하는지 묻자 "전혀 하지 않는다"고 했다.

"한번 했다가 대판 싸운 적 있어요.(웃음) 부부간에도 자존심이 부딪힐 때가 있잖아요. 하물며 배우들은 자존심이 더욱 강하고요. 저는 남편으로서 칭찬받고 싶어서 '어땠어?' 물었는데 아내네는 동료로서 '음~' 하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는 서로 작품에 대해서는 전혀 말 안 해요."

그러면서도 그는 신은정의 연기나 배우로서의 욕심도 높게 봤다. 동료로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박성웅의 모습이 남편으로서 애정을 표시하는 것 이상으로 '로맨틱'해 보였다.

물 사이에는 아들이 하나 있다. 아버지가 된 이후 연기에 영향이 있는지 묻자 그는 작품을 고를 때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점점 든다고 했다.

"그동안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 별로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드라마 '신분을 숨겨라'에서 드디어 정의로운 형사 역할을 맡아서 '아들, 아빠야!' 하고 첫회를 보여줬어요. 그런데 내가 상대를 너무 때리더라고. '음, 아들 안 되겠다' 했어요.(웃음) 아들을 생각하면 확실한 책임감이 생기기다 보니 더 열심히 하려는 생각이 들어요. 부성애를 다루는 따뜻한 영화도, 코미디 영화도 해보고 싶어요."

'씨스타' 효린과 지코, 팔로알토가 뭉친다

협업 프로젝트 눈길 "마치 한팀같이"



씨스타의 효린과 래퍼 지코, 팔로알토가 합작 컬래버레이션(협업) 프로젝트를 선보인다.

씨스타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효린과 지코(사진 오른쪽), 팔로알토가 함께 한 음원이 오는 26일 공개된다며 티저 이미지를 19일 공개했다.

세 가수의 조합은 여러모로 눈길을 끈다. 지코와 팔로알토는 엠넷 서바이벌 합작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4'에서 '지랄' 팀이란 애칭으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는 프로듀서팀이다. 합작에서 재능있는 프로듀서로 떠오른 '젊은 피' 지코와 정통파 힙합으로 팬들과 평단의 지지를 받는 하이라이트레코즈의 수장 팔로알토의 만남은 '쇼미더머니 4'에서도 이슈가 됐다.

또 효린은 씨스타에서 걸출한 보컬이지만, '쇼미더머니 4'에 이어 9월 11일 첫 방송 되는 엠넷 여성 래퍼 서바이벌 프로그램 '업프리티 랩스타 2'에서 래퍼로 도전한다. 지난 13일 강연도 평창에서 녹화가 열린 MBC TV '무한도전 영동고속도로 가요제'에선 정준하, 이상민 의 노래에 지음사도 했다. 이들은 티저 이미지에서 마치 한 팀 같은 분위기를 자아냈다.

스타쉽은 "세 프로젝트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며 "국내 최정상급의 아티스트들이 만큼 각자의 개성과 아우라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YG·양현석, 스포츠 기자에 명예훼손 소송 제기

YG엔터테인먼트와 소속 가수가 한 스포츠신문 K기자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을 제기했다.

18일 법조계와 가요계에 따르면 YG와 YG의 양현석 대표 프로듀서는 지난달 서울서부지법에 K기자가 칼럼 등에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각각 1억원씩 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YG와 양 대표는 K기자가 지난달 1일 게재한 칼럼과 일부 기사에서 소속 연예인의 마약 혐의 의혹 등 허위 사실을 담아서 자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빅뱅의 멤버 승리도 이달 초 서울중앙지법에 K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와 함께 YG의 한 직원이 서울북부지법에 K기자가 기사에서 명예를 훼손했다며 3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기자의 법률대리인은 통화에서 "청소년에 미치지는 않아요. 연예인들의 사생활이 건전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또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고 다른 스타에 비해 공격하지 못하는 측면에서 사법기관의 수사를 촉구한 것"이라며 "사실 관계에 입각해 기사를 썼다"고 반박했다.

/연합뉴스